

金星電氣

技術研究所를 찾아서



〈調査課取材〉

2月の 바람은 봄을 몰고오는 滿風인가 강둑을 따라서 烏山の 金星電氣技術研究所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 바람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었다.

작년에 아주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입장이 아마 오늘 같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본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다름아닌 해를 바꾸어서 작년 한해를 넘겼다는 안도의 뒤돌아 봄이 내 마음속에 불현듯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은 그만큼 우리의 電子工業이 고전한 한해였던 것이다.

금년 들어와서 業界는 작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의 열기들이 빛살처럼 業界의 여러 곳에서 뿜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금년이 經濟社会開發 五次五個年の 始發年度이며 電子工業을 집중 育成하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月29日 政府는 大統領을 모신 가운데 第1回 技術振興擴大會議을 개최하였다. 新年벽두부터 일기 시작한 政府의 技術振興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명은 새로운 의욕을 業界에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政府가 그만큼 科學技術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科技廳長官의 「80年代 技術革新의 課題와 対策」에 대한 主題 發表가 있었으며, 아울러 三星電子(代表: 姜 晋求)와 金星電氣(代表: 車 有培)로부터 技術開發 成功事例가 發表되었다. 이날 發表된 兩社의 新開發 技術은 그동안 우리가 技術移轉을 받지 못한 先進國들의 獨點物이었던 것을 순 우리의 電子工業人

들의 오랜 각고의 결실로 얻어진 것으로 치하해 할 일이었다.

정문에서는 미리 연락이 닿았는지 신분을 밝히자 쉽게 안내를 해준다. 날씨 탓인지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研究所 안으로 들어서자 잘 난방이 된 넓은 공간이 몸을 한결 따뜻하게 해준다.

河 龍璫 所長은 마침 所內에 부재중이어서 대신 金 寬明部長(技術1部長)이 밝은 미소로, 그러나 섬세한 눈길로 우리 일행을 맞이한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우선 나는 오늘 나누어야 할 대부분의 대화가 이미 「技術振興擴大會議」의 成功事例 發表를 통해 알고 있는 「Delta 變調方式多重化通信裝備」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것은 굳이 이 먼곳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기양에 소개된 金星電氣측의 報道資料에 의해서 소개만 하면 그만이지만 내 의도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發表된 事實은 그 자체로서 전면에서 소개되고 확인되는 순간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고유의 형태로 규정되어지는 단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의 규정되는 사실을 만든 상황이나 환경은 더욱, 더 확인 되어져야 만 한다는 일단의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나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과정으로서 자기가 몸담고 해온 어떤 일의 전반적인 과정의 각고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金部長에게 나의 그런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결국 내 생각일 뿐이었음을 오래가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너무 쉽고 빠르게 나에게 전달 되어졌으며, 내 愚問의 대담자로서의 단순성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金部長이 내게 던진 깨끗한 미소가 전부 를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미소는 내 생각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부의 겸손이었으며, 흔히 강렬한 자기 城의 구축자들이 보여주는 냉정한 거부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일의 작고를 어떻게 쉽게 얘기 한단 말인가? 그렇다. 나도 따라 몇적게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의 일과 거기에 쏟는 정열을 읽어내려 가겠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내생각을 알아도 상관없는 일이며, 나에게서는 무척 궁금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다 비슷한 경우에 있겠지만 특히 電子工業 分野에서의 국제적인 형편은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우수한 두뇌와 技術問發의 욕과 그로인한 技術 축적이 많이 내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범한 事實로 先 後進國을 가려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범주에서 볼때 先進國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기술이나 두뇌가 굳이 부끄러운 겸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은 電子工業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독창적이며 획기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電子産業의 發達을 최우선의 強國條件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때 그만큼 電子産業은 중요한 의미 이상의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金星電氣技術研究所의 新開發品인 「Delta變調方式多重化通信裝備」는 최근의 우리나라 電子通信技術의 한 개가로서, 앞에서 얘기한 경우로 볼때 자랑스런 일종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개발품은 우선 戰略的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先進 여러나라에서도 그 技術의 수준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기술에도 크게 응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輸出에 있어서도 당연히 높은 부가 가치를 얻는 매력있는 개발품으로 수출주문을 받아 놓고 있다고 한다.

金部長은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제품의 개발을 당연한 노력의 결과로 받아 들일 뿐, 그 개개의 결과에 대해, 그 동안의 작고의 날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믿음 때문이며, 그들이 가진 技術者생리의 우월감을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의무 때문일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電子工業을 이끌어 가는 모든 研究技術人들의 의식의 바탕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겸손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속깊이 불태우고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그럴 것이었으며 그것이 쉽게 이해 되는 일로써 우리나라 電子工業 20年の 歷史가 그를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先進國이라 부르는 美國이나 日本,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 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여기에 와서 韓國의 電子工業이 젊다는 것을 짧은 순간에 확인하게 된 것이다.

金星電氣技術研究所는 지난 78년에 세워진 후로 그동안 60억원의 研究開發費를 투입하여 주목 할 만한 研究 活動을 해왔다. 同研究所는

우리나라 通信産業의 가장 우수한 先發 研究所의 하나로, 그만큼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많은 실적을 쌓아 올린것이 사실이다.

通信技術의 革命이라고 말할 수 있는 光通信 時代를 여는 先頭 역할을 한 同研究所는 끊임없는 技術에의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 研究所의 技術開發은 사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넓게는 政府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고, 국내의 여러 研究機關과 業界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에 의한 결실입니다. 또한 어느 것 하나 한 기업에서 이룩했다는 자랑을 떠난 총체적인 관심과 격려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 金部長의 얘기는 그것대로 설득력이 있는 솔직한 말이다. 과거를 구태여 돌아볼 필요는 없으나, 10여년전만 해도 얼마나 낙후된 국내 通信産業이었던가를 생각할 때 확실히 오늘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오늘날은 기술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研究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電子技術人들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金部長은 「할 수 있는 일의 실마리만 보이면 아무리 험클어진 일이라도 풀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재 양성이죠, 우리의 두뇌는 우수합

니다.」 이렇게 자신에 차서 말한다.

金部長은 오늘 代表로 나선 경기의 宣誓者같다. 경기에 있어서 물은 사실 소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선수 자신의 기량과 필드가 주연이 되는 것이다. 電子工業에 있어서도 技術과 人材의 상호관계가 그러하리라 생각해 본다.

金星研究所는 국내의 電子通信部分의 기능을 先進國 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하여 中長期 연구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그 실행에 여념이 없다. 미래를 여는 技術축적이란 요술방망이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인가 큰 믿음 하나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것은 아마 모든 일의 제 일의에 있는 「希望」 그것일 것이다.

研究所를 나서기 전에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악수란 믿음의 표시이며 자기 확인의 言表이다. 우리는 서로가 그런 표징하나씩 가지고 헤어지게 된 것이다.

밖은 여전한 2月の 바람. 그러나 어떠한 봄을 위한 滿風이라면 가득차서 빨리 버릴것 버리고 새로 태어날 것은 태어나라. 우리의 電子工業은 반드시 희망의 봄을 맞을 것이다.

우리의 땅에는 도처에 烏山の 技術研究所와 같은 熱氣의 研究所가 속속 세워지고 있지 아니한가.

